

사회 >> 3면

최저임금, 1만원 향하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부 주목

기획 >> 4면

뜨거웠던 지난 우리의 추억

현장르포 >> 5면

한강공원 즐길거리 TOP4

제571호

2023년 7월 17일(월)

‘콘텐츠를 통한 사회공헌’ 청년문화 콘텐츠기획단, 문화로 농어촌 돕는 프로그램 진행해

청년문화 콘텐츠기획단 (이하 청문단)이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문화농어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청문단은 해마다 문화로 농어촌을 돕는 문화농어촌을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1회는 전북 부안군, 제2회는 전북 순창군, 제3회는 강원도 홍천군, 제4회는 화성시 국외도, 제5회는 화성시 점곡항에서 열렸다. 이번 2023년 제6회는 경남 산청군에서 진행했다. 청문단의 문화농어촌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관광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고 프로그램이 가진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발·제안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농촌과는 차별점을 띤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콘텐츠를 제작한다. 서경대 신

문사는 청문단의 문화농어촌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박소현 부단장과 노병기 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박소현 부단장 (평화론 23학번) 노병기 팀장 (문론 17학번)

Q. 문화농어촌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A(박). 문화농어촌 첫날 저녁에 진행된 대표팀과의 상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 진행된 상견례에서 대표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문제점은 무엇인지,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등 대표님의 현실적인 고민과 이를 발전시키고자 하시는 열정 넘치는 마음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이 이들간의 콘텐츠 제작 활동의 첫 시작이기도 했고, 또 농촌 지역을 알리고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대표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기에 더 열심히 임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 활동이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A(노). 이번 산청 문화농어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일 차 저녁에 문화농어촌 참여 기업 대표님들과 바비큐 파티를 한 것입니다. 대표님들을 만나 본 지이틀이 채 안된 시간이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지리산을 바라보며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문화농어촌을 통해 느낀 점이나

인상 깊었던 점이 있을까요?

A(박).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미 없이 흘러가버릴 수도 있는 방학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하나라도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문화농어촌 활동을 신청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을 했었던 것인데 문화농어촌 활동을 통해 정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경험이 부족한 제게 직접 문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콘텐츠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큰 경험이 되어주었습니다.

문화농어촌의 마지막 날 프레젠테이션 시간 또한 인상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문화농어촌 참여 경험이 있던 선배들의 콘텐츠를 보며 ‘내가 준비하며 막혔던 부분들은 저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



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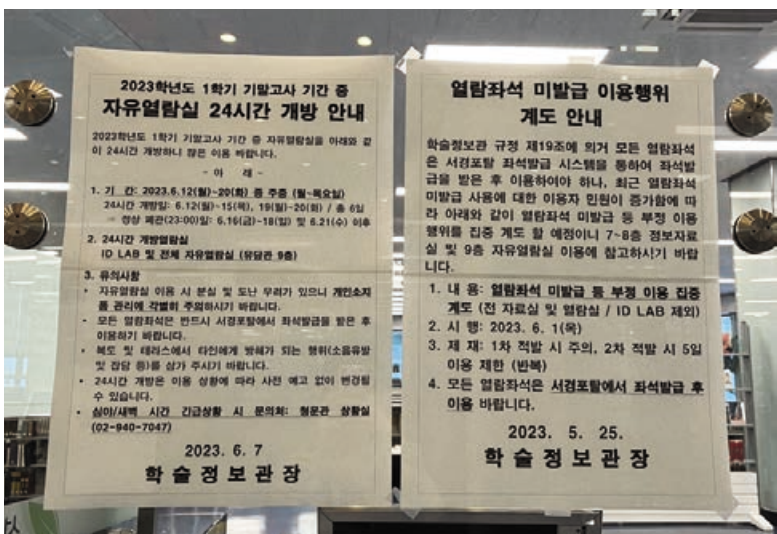
A(노).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2017년 순창 문화농어촌 이후, 6년 만에

참여한 문화농어촌이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학교생활과 더불어 인턴생활과 대외활동을 병행하며 정신없

이 보냈기 때문에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고, 6년 동안 개인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신청한 활동이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즐거웠던 있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또 다른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6년 전 아무것도 모르는 내게 많은 도움을 줬던 선배들처럼, 이제는 제가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비록 이번 활동이 학생 신분으로 참여하는 마지막 문화농어촌이었지만,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학술정보관, 지속적인 열람좌석 미발급 이용행위에 조치 시작해...



지난 5월 25일, 서경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술정보관 열람좌석 미발급 이용행위 제도 안내’에 관한 글이 게시됐다. 본래 학술정보관 규정 제19조에 의거해 모든 열람좌석은 서경포탈 좌석발급 시스템을 통하여 좌석발급을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하나, 최근 열람좌석 미발급 사용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좌석 미발급 등 부정 이용행위를 집중 계도 할 예정이다. 7-8층 정보자료실 및 9층 자유열람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및 열람실에서 해당되는 내용으로, 모든 열람좌석은 서경포탈에서 좌석발급 후 이용 가능하다. 6월 1일 목요일부터 계도가 시행돼 1차로 적발될 시 주의 조치를 받고, 2차 적발 시에는 5일간 이용이 제한된다. 아래는 학술정보관 부정 이용행위 집중 계도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고, 학술정보관 학술정보과 계장님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Q. 좌석 미발급 이용행위 적발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A. 미발급 이용행위는 담당 직원

이 1일에 2회 가장 서경 포탈에 접속해 좌석발급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빈 좌석에 이용자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파악했습니다.

Q. 발급 이용행위 2차 적발 시, 5일간 ‘이용 제한’ 되는 것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A. 1차 계도 때는 추가 적발 시 5일 이용 제한 제재가 부여됨을 안내합니다. 이후 2차 이상 적발 시 부여되는 5일 이용 제한은 도서 대출 및 시설물(스터디룸 등) 예약 제한으로, 학술정보관 출입까지는 가능한 제

재입니다. 이는 향후 제도 정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Q. 계도 시행 이후, 미발급 이용행위 적발 건수와 이용 제한된 수가 지금까지 몇 건 발생했습니까?

A.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계도 활동을 진행한 결과, 계도 건수는 총 105건(7층 자료실 12건, 8층 자료실 46건, 9층 열람실 47건)이었으며 이중 중복(2차) 적발 건수는 5건입니다.

Q. 계도 조치가 현재 학술정보관 질서 유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A. 이번 기말고사 기간 중 열람좌석 관련 불편 사항이나 특이 민원 발

생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시험 기간 위주로 열람좌석 이용 상황에 따라 좌석 미발급 이용행위 계도 진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Q. 이 외에도 학술정보관 질서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열람실 및 자료실(복도 포함)에서 큰 소리로 대화나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삼가주세요 합니다. 또한 출입 게이트를 2인이 동시 통과하는 행위(안전사고 발생 위험 뿐 아니라 부정 이용에 해당) 등과 같은 행동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준은 기자
(20eun00@naver.com)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세요~

서경대 노어전공, 경주 고려인 마을 ‘손에 손잡고’ 봉사활동 다녀와... 경주여중 찾아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줘”

지난 6월 2, 3일 이틀간 서경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노어전공 학생 9명이 경주 고려인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고려인 마을은 2015년경 이후 고려인 동포들이 갑작스럽게 많아지면서 고려인 마을로 변모해 가고 있는 곳이다. 경주에는 현재 약 3000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경주시 전체 인구 약 25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 적지 않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주 성건동에 흥무초등학교와 계림초등학교에 고려인 자녀들이 많이 입학해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다고 한다. [출처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 노어전공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그간 수업에서 습득했던 지식을 활용하여 고려인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뿔모뎀’ 로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경주여자중학교를 찾았다.

첫째 날, 노어전공 학생들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고려인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경주여자중학교에 방문해 서경대학교 소개와 더불어 한국어 수업, 한국의 전통 매듭 팔찌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대학 생활을 비롯해 일상에서 쓰이는 한국어 관용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며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발표를 준비했다.

경주여중 고려인 학생들은 처음부터 환한 미소로 반갑게 노어전공 학생들을 맞이했다. 수업에서도 이어진 경주여중 학생들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수업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연신 웃으며 밝은 표정으로 인사해주고 대답하는 학생들 덕에 수업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이날 수업을 위해 며칠 동안 수업을 준비했다. 여기에 노어전공 박진환 교수와 잔나 오프브나 발로드 교수가 도움을 보냈다.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는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격려가 이어졌다.

둘째 날, 첫째 날에 수업을 들었던 경주여중 학생들과 고려인 고등학생들이 불국사 견학에 함께했다. 고려인 학생들은 노어전공 학생들과 자유롭게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나눴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경주여중에서 이중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 예카테리나 교사는 “사



▲ 출처: 권혁진(국어 16) 학우

전에 학생들에게 활동을 안내했을 때 보다 훨씬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며 “특히 첫 번째 서경대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에 학생들이 대학 진학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서경대 학생들이 큰 보람 느끼

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오 교수는 이러한 교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원치 않게 중도 입국해 자기의지로 한국에 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어를 못해서 자신감이 없는 상태. 소외되고 관심이 필요

한 아이들이다. 서경대 노어전공 학생들이 시간을 내서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고, 학생들도 그 관심을 충분히 느꼈다.”고 전했다.

오 교수는 봉사 일정 내내 동행하면서 고려인 마을과 고려인 학생들의 상황을 비롯한 고려인 생활에 대

해 상세히 알았다. 그의 역할은 한국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러시아어로 설명하고, 담임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안내 사항, 중요 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기도 하며 학교생활 상담과 심리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봉사에 참여한 김민정(글로벌 노어 21) 학우는 학생들과 함께 불국사에 견학 갔던 것을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고려인 학생들은 이미 불국사에 기본 친구들이 많을 텐데 단지 언니, 오빠들을 보고 싶어왔다고 해서 고맙았다. 몹시 더운 날씨에 꽤 오랫동안 걸어야 해서 걱정됐었는데,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내내 해맑은 모습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고맙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어를 잘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 더욱 긴장됐지만 열심히 참여를 해줘서 수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고맙았다”고 전했다. 이어 “고려인 학생들이 문화적, 언어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습 의욕이 없었는데, 우리를 만나고 목표와 꿈이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어 정말 기쁘다.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뿌듯하다. 앞으로도 이런 봉사나 교류할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봉사활동 소감을 밝혔다.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올해도 “방학에 인턴하자!”... 서경대, 4년 연속 ‘취업연계 중점대학’ 실시

지난 4월 14일, 서경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국가근로장학 취업연계 중점대학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고 밝혔다.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유형인 취업연계 중점대학은 학생에게는 근로를 통해 장

학금을 지급하고, 실무능력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신규 채용의 부담 완화와 검증된 학생 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취업연계 중점대학을 처음 실시한 2020년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11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동안 220개 기업에 674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선정평가 결과 서경대가 만점을 받은 바 있다.

서경대는 취업연계 중점대학 4년 차로, 지금까지 원활히 운영됐다. 학생들은 취업연계 근로 경험을 발판 삼아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거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6월 22일에는 서경대학교 유담관에서 취업연계 중점대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사전교육이 진행됐다.

서경대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종강 후 매주 월요일부터 바로 근로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취업연계중점대학 실무를 담당하는 이진영 직원, 유수현 직원과 박준영 조교는 근로 중 유의사항과 부정근로에 관해 안내했다.

사전교육 이후, 현장실습센터 주임교수인 융합대학 조흥연 교수는 인턴의 중요성과 비즈니스 매너 특

강을 진행했다. 조흥연 교수는 “학생들과 직접 면담을 봐서 이렇게 다시 만나니 반갑고, 얼마나 잘할지 기대된다. 방학에도 열심히 해서 현장실습학기제도 참여하고, 인턴십 경험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 건강 유의하고 하루하루 보람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3학년도 하계방학 취업연계 중점대학에 선발된 학생들은 6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근로한다. 취업연계 중점대학 근로 학생들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근무하며, 근로 시간에 따라 대학에서 시급 11,150원을 국가장학금으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한다.

취업연계 중점대학은 학적 상태가 ‘재학’인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도중 휴학, 자퇴, 졸업 등 학적 변동 시 참여 불가하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

윤정현 기자



한 눈에 보는 이슈

정치

최저임금, 1만원 향하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부 주목

경제

신용카드의 축소 판 ‘디지털 외상거래 서비스’ 연체율 급증

사회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천문학과 기술의 결합으로 우주 개척 나선다

문화

공연계, 암표 논란.. 자유인가 침해인가

연예

중소돌의 기적, ‘피프티 피프티’ 전속 계약 분쟁 지속..

스포츠

‘손목통증’.. e스포츠의 전설, T1 10년만의 휴식 택해..

자세히 보는 이슈

최저임금, 1만원 향하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부 주목



▲ 출처 : 한국경제TV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건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최근 6년 새 48.7%(3150원) 올랐다.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1544원으로 이미 1만원을 넘긴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대 초반으로 결정될 경우 주휴수당이 반영된 최저임금은 1만 2000원대에 진입한다. 노사 양측은 3, 4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출했다. 노동계는 1만114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9740원을 제시했다.

초반에 비해 금액은 1400원으로 간극은 많이 좁혀졌으나 최저임금 위는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라면 노동계는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대에 접어들 경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가 10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9.1%는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인해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응답했다. [출처 NEWS 1] 서초

구 잠원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씨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인건비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게 무서울 지경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반해 지난 3월 민주노총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올해 최저임금이 충분하냐?'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84.2%에 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3일 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4차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최저임금 합의안은 오는 13일 밤 또는 14일 새

벽 합의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향할지 인상 여부가 주목된다.

[시민 인터뷰]
- 고영자 (61세/자영업자)

Q.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부담입니다. 현재 재료비, 전기세, 수도세 또한 많이 올라 가게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음식 가격을 쉽사리 올릴 수도 없는데, 최저임금까지 오른다니, 고민이 깊어집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물가에 맞춰서 올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변치않는 사실입니다.

Q. 적당한 최저임금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A. 얼마가 적당하다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금액이 가장 적당한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생 혹은 노동자 또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연세나 9000원대의 시급을 받으며 생활할 수 없으니까요. 완만한 합의를 통해 노동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가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 천문학과 기술의 결합으로 우주 개척 나선다

지난 5월 25일, 대한민국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에 성공했다. 지난해 6월 2차 발사에서는 강풍, 센서 이상 등으로 인해 2차례 일정 지연이 연거푸 바 있다. 당초 예정됐던 6월 15일엔 기상 악화, 16일엔 산화제 레벨 센서 부품 이상이 발생하며 21일에서야 발사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3차 발사는 지난해 2차 발사와 달리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됐다. 누리호가 발사되기 위해서 온도는 영하 10°C에서 영상 35°C 여야 하고, 지상풍은 평균 풍속 15m, 순간 최대풍속 21m를 넘어선 안된다. 또 비행경로 상에 번개 방전 가능성도 없어야 한다. 이 같은 기상 조건을 여유 있게 충족한 셈이다.

발사체의 성능을 검증하는 앞선 시도와는 달리 이번 3차 발사는 실제 실용위성의 궤도를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자체 발사체로서 페이로드를 실어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국제 논의에서 큰 본보기로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온 우주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신뢰성은 국제적인 우주산업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주며, 수출 증가와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우주산업의 성장과 기술력 강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 창출, 국제적인 입지 강화 등 다양한 영향력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들은 성공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된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진행하여 대한민국이 우주산업 분야

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이러한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며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한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이 미래 지향적인 우주 개척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로 기록됐다. 이는 국가 전반에 희망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대한민국은 누리호의 성공을 통해 우주 개척의 길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며, 새로운 발전과 혁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성과를 거두어 나갈 것이다.

한편 누리호는 2027년까지 세 번의 추가 발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노후 우물 이전 받아 체계종합기업 역할을 수행하는 등 민간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키우는 작업도 이어진다.

Q. 대한민국이 우주 개척 분야에 성과를 거두는 것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나요?
A(김영기). 우주산업은 첨단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분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국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우주 개척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은 국가적인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A(이민수). 우주 개척은 국가의 과학 기술력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성공은 국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주 개척 분야에서의 성과는 국내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정현 수습기자
(tony043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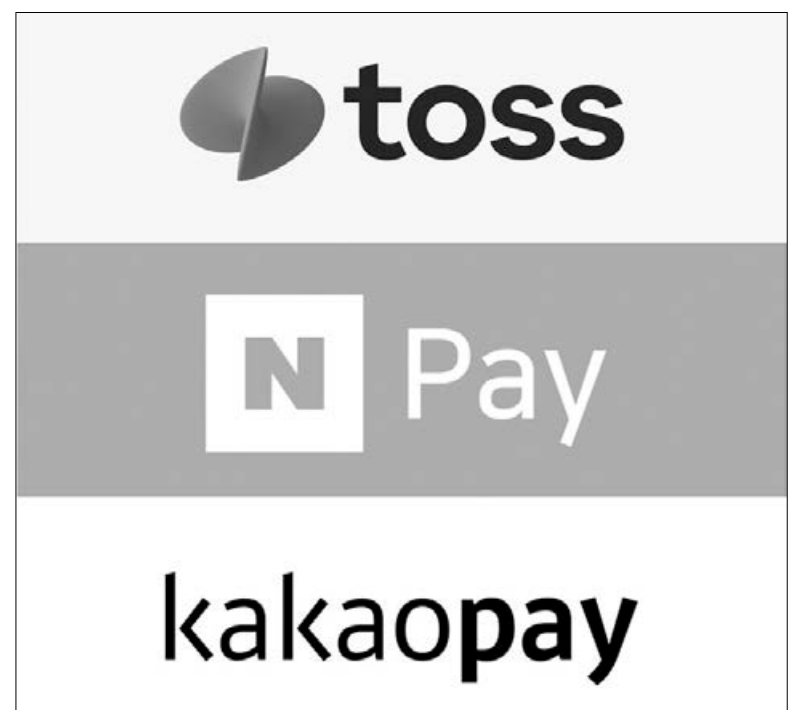
▲ 출처 : 동아시아뉴스

신용카드의 축소판 '디지털 외상거래 서비스' 연체율 급증

신용카드 없이도 후불결제 가능해 청년층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외상거래 서비스(BNPL)'의 연체율이 최근 1년 새 급증하고 있다. 디지털 외상거래 서비스는 일명 '지금 사고 결제는 나중에(buy now, pay later)'라는 의미를 가진 후불결제 시스템이다. 사업자가 물품 대금을 미리 지불하여 보유하고,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후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간편 결제 시스템과 접목하여 사용된다. 신용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 청년층과 주부에게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후불결제 시스템의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연체율 또한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의 3월 기준 총 채권액은 445억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2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이용자가 가장 많은 토스의 경우 지난 3월 연체율 5%를 기록했으며, 네이버페이, 토스의 경우 1년 새 1.28%에서 2.7%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후불결제 시스템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주된 이유로 연체정보 공유 제한을 꼽는다. 금융위원회는 BNPL 서비스 사용자의 금융 이용 기회 보장을 위해 연체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따라서 회사들이 연체자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신용평점에도 반영되지 않아 고의로 연체를 지속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디지털 외상거래 서비스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서는 지불을 회피하는 소비자들을 대처할 합리적인 규제



▲ 출처 : 연합뉴스

및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불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또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지불 능력에 벗어나는 과소비를 하지 않도록 올바른 재정관리 계획을 세워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학우 인터뷰]
- 이혜니 (22세), 김서연 (가명/23세)

Q. 디지털 외상거래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나요?
A(이혜니). 알고 있습니다. 토스와 네이버페이의 후불결제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A(김서연). 몰랐습니다. 하지만 검색해보고 난 후,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디지털 외상거래 서비스의 연체율 급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이혜니). 소액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갚는 데 부담이 적어 후불결제를 자주 사용하게 되지만,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 사용자들은 보통 돈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A(김서연). SNS의 영향으로 모방 소비, 과소비가 늘어나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우 수습기자
(milkyway_85@naver.com)

공연계에서 논란인 압표... 자유인가 침해인가

최근 공연계에서 압표 논란이 주목받고 있다. '압표'란 웃돈을 얹고 팔아서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거래되는 불법적인 표를 일컫는다. 이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 과거에도 압표는 존재했지만, 코로나가 완화되고 여러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오랜만에 열리면서 압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물가 상승으로 전체적인 표값이 올랐지만, 압표는 원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팔려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가수 스윙스는 전석 9,900원인 콘서트 티켓팅을 열었으나 총 5,000석 중 800석가량이 팔린 저조한 예매율로 인해 콘서트를 무료로 전환했다. 이후 진행된 무료 티켓팅은 전석 매진이 되어 추가 티켓팅을 열 정도였다. 그러나 이 무료 티켓에 값을 매겨 되파는 압표 상인들이 나타나자 공연은 가수가 하는데 중간에서 수익을 챙기는 건 압표 상인들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래퍼 윤희원은 자신의 SNS에 콘서트 추가 티켓이 열리니 압표를 사지 말라는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또한 연세대 축제 이카리카에서도 압표 논란이 있었다. 연세대 축제 특성을 보려는 사람이 많아 학생들에게 축제 티켓을 판매한다. 올해는 학과별 단체 티켓 9,000장과 학생 개인 티켓 2,200장을 판매했으나 이 티켓 정가의 10~15배에 달하는 최대 25만원으로 책정된 압표가 나타났다. 또한 축제 공연을 하는 가수의 무대를 찍기 위한 외부 팬들이 대포 카메라를 소지하여 시야가 방해되자 연세대 학생들과 외부인들 사이



▲ 출처 : 대구신문

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연세대 학생들도 티켓이 없어 공연을 못 보는데 외부인들이 압표를 사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의견과 그 압표도 결국 처음 티켓을 얻은 연세대 학생이 판매한 것이므로 연세대 학생들이 원인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공연된 부르노마스 콘서트는 8연석을 1억 8,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비롯해 많은 압표가 인터넷 상에서 거래되었다. 이에 대처하여 콘서트 주최 측에서 불법 거래로 확인된 티켓은 사전 안내 없이 취소 처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강압적 조치에도 압표는 계속해서 거래됐다. 부르노마스 콘서트 주최 측인 현대카드가 무대가 잘 보이는 그라운드 1열을 연예인 특혜로 초대권을 남발해 팬들은 압표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반발이 일자 현대카드도 별도 연예인 초청은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이종현 회장은 공연시장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던 압표 부정거래가 케이팝 시장의 확대와 함께 진화하고 있다며 음공협은 올해 압표 근절의 해를 목표로 하반기부터 대

대적인 세미나와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 인터뷰]
- 이채우(21세), 유소정(21세)

Q. 압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이채우). 티켓을 되파는 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티켓팅 실력 또한 개인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연 측은 티켓이 다 팔리고 손해 보는 것이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팬들에게 티켓을 무효 처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공연자에게 손해입니다.
A(유소정). 압표를 사고 파는 사람들의 사정이 어찌 됐든 압표는 불법입니다. 계속해서 압표 부정거래가 이뤄진다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것입니다. 신분 확인이나 부정 거래 티켓 무효 처리 등으로 점차 압표 거래를 줄여야 합니다.

김나연 수습기자
(nykim0130@skuniv.ac.kr)

뜨거웠던 지난 우리의 추억~♡

기말고사를 치르고 종강하고 나면, 지난 한 학기를 새끼말게 잊어버린다. 당장 뭘 했는지도 바로 기억이 나질 않는다. 언제 그랬냐는 듯 기억은 금세 휘발된다. 신문사가 취재를 진행하면서 행사에 직접 참여해보기도

하며 포착한 순간들이 참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는 활발한 대면 행사가 재개됐기 때문이다. 남은 건 사진이라더니 남은 건 정말 사진뿐이었다. 지난 한 학기를 기억하려고 물으면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하겠지만

놓친 순간들도 많을 것이다. 그간 저장 공간을 채운 사진 중에서 엄선하느라 고심하고 또 고심했다. 이 기획 기사가 뜨뜻뚝 떠오르는 순간의 빈자리를 채워줄 테니 신문사가 마련한 여행선에 몸을 실어보자.

신입생 문화제



동아리알림제



간식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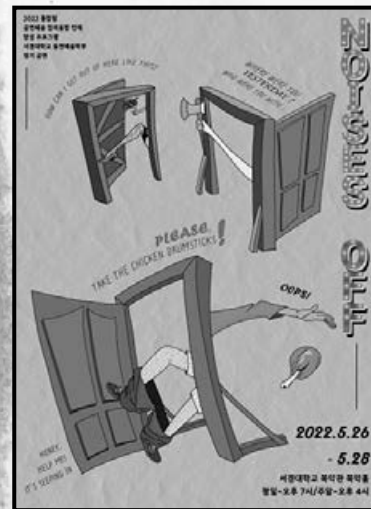
이공 & 인싸 체전



대동제



정기공연 & 졸업작품전시회



지금까지 지난 네 달간 진행된 다양한 행사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의 창궐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했다.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꺾임에 따라 대면 행사들이 속속히 기지개를 켜고, 드넓은 캠퍼스에는 학우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다시금 되찾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다. 다가올 2 학기에 개체 될 다양한 행사에도 많은 관심바라며, 지난 1 학기를 무사히 마친 모든 학우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도심 속 힐링 공간 -

서울 생각 마루*



한강의 전망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다면 여기는 어떨까. 바로 '서울 생각 마루'다. 서울 생각 마루는 한강공원의 문화쉼터다. 이곳은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시설이다. 1층에 위치한 '카페'와 3층에 위치한 '상상 마루'를 제외한 모든 공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점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7호선 독섬유원지역 3번 출구와 연결돼 있어 이용에 용이하고 탁 트인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서울 생각 마루는 총 4층으로 구성된 건물이다. 지하 1층은 독섬 한강공원과 연결되고, 1층부터 3층까지는 각기 다른 컨셉의 공간이 꾸며져 있다. 엘리베이터로 층마다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니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린이와 함께 방문했을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을 적극 추천한다.

1층은 '천만 시민의 책장'이라는 주제로 북카페 컨셉의 공간이다. 이곳에선 한강 조망과 함께 독서를 즐길 수 있다. 책장에 채워진 책들은 서울시민의 참여를 통해 도서 목록이 구성됐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시민이 이곳에 앉아 독서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서 공간 좌측에는 카페 '트립티'가 있다. 음료부터 디저트까지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돼 있어 취향에 맞게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음료의 가격은 대개 2000원에서 5000원대다. 음료와 디저트는 오직 1층에서만 즐길 수 있으니 주의 바란다. 필자 또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한 잔 주문해 의자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이후 걸음을 옮겨 2층으로 향했다. 2층은 '서울 생각 마루 책장'이라는 주제의 공간인데, 1층과 마찬가지로 독서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1층과 마찬가지로 독서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1층과 마찬가지로 독서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 2층은 1층과 달리 다소 조용한 분위기였다. 보다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면 2층에 자리 잡길 권장한다. 2층 헌책 놓아진 일자형 테이블에는 자리마다 플러그가 있어 장시간 노트북 작업을 하기에 좋아 보였다.

3층 상상 마루는 개인 컴퓨터 사용 업무, 공용 사무 및 작업공간을 주제로 한 유료 대관 공간이다. 이에 따라 대관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출입할 수 없었다. 이용요금표를 살펴보면 1인석과 2인석 모두 1일에 5000원으로 시중 스타벅스 카페보다 저렴한 금액이었다. 이외에도 최대 10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도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란다. 썬지만 알차던 서울 생각 마루 탐방을 마치고 다시금 독섬 유원지 역으로 향했다. 생각 마루 정문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는 단 5분 내외다. 이보다 더한 도심 속 힐링 공간이 있을까? 무더운 여름 이색적인 힐링 공간을 찾고 있다면 서울 생각 마루에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책과 휴식 그리고 멋진 조경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운영 시간 : 10:00 ~ 21:00 (매주 월요일 휴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휴관)
주소 : 7호선 독섬유원지역 3번 출구
문의 : 02-3780-0517

도심 속 낙원인 한강공원, 그러나 실상은 '쓰레기 무덤' -

여의도 한강 플로깅*

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불꽃놀이, 각양각색의 플라마켓과 푸드트럭이 모여 방문객들을 반기는 등 한강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공개한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2월 120만 명이었던 이용자 수가 3월 들어 130만 명을 기록하더니 5월에는 293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유동인구가 증가한 만큼 한강은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강공원의 관계자가 주말 동안 약 57톤의 쓰레기가 나왔다고 밝혔을 정도로 그 배출량이 상당하다.

본 기자는 현재 한강의 쓰레기 분리배출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버려진 쓰레기들을 조금이나마 치워보고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플로깅(plogging)을 해봤다. 플로깅이란 산책 또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일컫는 말로, 주변을 자유롭게 거닐며 친환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다.

한강공원 내에서 발견된 쓰레기들은 주로 일회용품과 전단지들이었다. 잔디밭에서 돛자리를 깔아두고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문화 특성상 비닐봉투나 나무젓가락, 빈 음료수 병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져 있었다. 게다가 입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들은 공원 이곳저곳에 버려져 있었다. 전단지 수거함과 일반·재활용·음식물 쓰레기통이 중간마다 배치돼 있었지만 역부족으로 보였다. 쓰레기통이 구비돼 있음에도 정리하지 않고 가는 이도 있었고, 바로 앞에 쌓아두고 가는 이도 있었으며, 쓰레기통이 가득 차어쩔 수 없이 주변에 버리고 가는 이도 있었다.

가장 심각해 보이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였다. 플라스틱 용기 안에 담긴 채로 그대로 버려지는 것도 있어 재활용하기에 곤란해 보였다. 또한 길거리에 방치된 음식물은 비둘기가 쪼아 먹고 있거나 벌레가 꼬여 있는 등 미관상으로도 불쾌함을 야기했다. 지난해 4월 서울 시내 11개의 한강공원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무려 18.8톤이라고 한다. 한강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으나, 음식물 쓰레기통이 개별적으로 구비돼 있음에도 분리배출하지 않는 모습은 시민 의식의 부재로 보였다. 텃밭용 공원 외곽의 도로에는 담배꽂지도 다수 버려져 있었다. 현재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5개의 휴연부스가 설치돼 있는데 그럼에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며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전체적인 상황을 둘러보며 플로깅을 진행한 결과, 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수 있는 환경이 나쁨 구비돼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용객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한강을 더럽히는 배달 전단지나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자발적으로 분리배출 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답답한 도시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매일경제

무더위는 피하고,
추억은 쌓고 싶다면
여기는 어때?

한강공원 즐길거리 TOP4

한강의 여름은 꽤 낭만적이다. 녹음이 우거진 나무와 뽕빛 노을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일렁이게 만든다. 칠랑이는 물결과 주변의 소음 그리고 눈 앞에 펼쳐진 빌딩 숲까지 모든 게 조화롭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한강공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 시민들 사이 사랑받는 명소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한강의 매력은 재방문 의사를 한층 더한다. 사계절 모두 다른 매력을 품고 있는 한강공원. 그중 여름의 한강은 어떤 매력을 품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취재부가 나섰다.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서경대 신문사와 함께 떠나보자.

우리가 몰랐던 한강의 불빛을 따라서 -

한강 야경 투어*

서울 안에서 이동할 때면 한 번은 지나치게 되는 한강. 지나다니며 참밖 너머의 한강을 보고 있으면 한강에 대한 궁금증이 슬금슬금 피어난다. 생각해보면 낮의 한강은 자주 가기도 하고 한 번 가면 오랫동안 머무르는데 밤의 한강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자 자연스럽게 한강의 밤에 관심이 생겼고 한강에 관한 정보를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필자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사이트에서 '한강 야경 투어'를 알게 되었고, 궁금했던 한강의 밤을 알아보기 위해 한강 야경 투어를 신청했다. 한강 야경 투어는 한강 야경 속, 숨겨진 이야기를 찾는 건기 여행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래섬에서 시작해 세빛섬, 달빛 무지개 분수까지 이어지는 반포 달빛길을 걸으며 한강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다. 기상악화나 현장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코스는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6월과 9월 매주 금·토요일 19시부터 진행되며 회당 성인 25명 대상으로 인솔자 동반 시에만 미성년자 참여가 가능하다. 한강 이야기 여행 누리집에서 희망 투어일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당일 준비물 및 주의사항 문자가 온다. 오래 걸어야 하니 편한 복장과 개인위생을 위한 유선 이어폰이 준비물이다. 반포 안내센터 앞 공터에서 다 같이 모인 뒤 출발하는데 투어 참여자 목걸이와 송수신기를 같이 받았다. 그 자리에서 반포



유래 설명을 듣고 서래섬으로 이동했다. 유채꽃 길을 지나 동작대교가 보이는 광장 나무에 자리 잡고 9월에는 유채꽃밭이 메밀꽃밭으로 변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해가 대교 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인다고 했는데 필자가 방문한 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 그 모습은 보지 못했다. 이번 한강 야경 투어에서는 무드등 체험이 프로그램 속에서 함께 진행 중이라 필자도 체험할 수 있었다. 무드등 체험은 9월에도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하니 한강 풍경을 보며 자신만의 무드등을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은 신청해보길 바란다. 무드등 체험을 마치고 나서 유채꽃밭 옆길에 나 있는 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세빛섬 쪽으로 이동했다.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이 세 개의 섬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다. 세빛섬 쪽에 도착해서는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 순으로 설명을 듣고 가빛

섬 옥상에 올라가 볼 수 있었다. 평상시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만큼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옥상에서 내려다본 한강의 모습은 운치 있었다. 그다음에는 달빛 무지개 분수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보다 해설사님을 따라간 곳이 무지개 분수가 더 잘 보였다. 분수 바로 아래에서 분수를 구경할 수 있었는데 노래에 맞춰서 색과 물줄기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무지개 분수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야경 투어는 끝이 났다.

밤의 한강을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것도 아닌데 오늘 설명을 들으며 걸은 한강 길은 새로운 느낌이었다. 바쁘게 움직이며 투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도 찍으며 한강의 물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해 질 녘부터 해가 지고 나서 새로운 불빛들이 들어오는 한강은 그냥 가만히 앉아 지켜보기만 하면 한강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냥 걸으며 한강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무드등 체험도 해볼 수 있었고 알아가는 것도 많아 생각보다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운영 시간 : 6월 9월 매주 금·토요일 19:00~20:30
신청 방법 : 한강이야기여행 누리집 신청 (희망 투어일 5일 전까지 신청 가능)
문의 : 운영사무국 02-761-2588

도심 속의 낭만이 흐르는 곳 -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바쁜 일상 속 여유를 찾고 싶지만 멀리 떠나지는 못할 때, 힐링과 함께 감성에 젖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면 여기는 어떨까. 맛있는 먹거리와 함께 노래를 들으며 낭만까지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이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문화공연이다. 2015년 시작해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광장 특설무대에서 클래식과 국악, 서커스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진행해왔다. 이번 2023년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두 곳에서 열린다. 평일에는 광화문, 주말에는 노들섬에서 즐길 수 있다. 그중 이번에 소개할 곳은 노들섬이다. 노들섬은 '음악을 매개로 한 복합문화기지'로 대중음악중심 공연장, 문화산업을 위한 업무공간과 상업공간 등 서울시민에게 새로운 문화생활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시설이다. 매달 다양한 전시와 공연 및 노들 서가 등 문화 시설도 준비되어 있어 함께 방문해보는 걸 추천한다.

오후 6시부터 진행되고 있어 뜨거운 낮의 열기가 가신 후 비교적 선선한 기온인 밤에 즐기기에 좋다. 공연장에는 계단식으로 꾸민 좌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돛자리 대여가 가능하므로 따로 챙겨갈 필요 없이 가볍게 방문해도 된다. 그뿐만 아니라 캠퍼용 의자를 가져와 힐링하는 사람도 있으니 자유롭게 즐기면 된다. 본격적인 공연 관람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먹거리다.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지만, 노들섬 안에는 피자과 분식 등의 음식점과 편의점까지 있어서 공연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공연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공연이 시작하기 몇 분 전부터는 잔잔한 배경음악이 나와 지루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다. 총 3팀의 공연이 진행되며 공연팀은 매번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노들섬은 일몰이 예쁘기로 유명해서 공연 뒤로 해가 지는 모습까지도 감상할 수 있다. 다른 한강공원들과 달리 크게 복잡하지 않아서 여유롭게 즐기고 가기에 좋다.

운영기간 : 4월~11월 매주 주말
공연정보 :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홈페이지

지금까지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활동 4가지를 알아봤다. 취재부가 실제로 마주한 한강의 모습은 역시나 아름다웠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 또한 넘쳐났다. 한강은 사계절 모두 다른 매력을 품고 있어, 시민들에게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장소다.

한강공원 또한 이에 대응하듯 이색적인 체험 활동과 장소들을 계속해서 개발, 마련하고 있다. 그중 취재부는 4가지 활동을 골라 체험해 봤는데,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한강 야경 투어', '여의도 플로깅', '독섬 자벌레 서울 생각 마루'가 바로 그것이다. 4가지 활동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은 덜고 추억은 쌓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올 여름, 현장르포면을 참고해 한강에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더위로 피하고, 추억은 쌓고 분명 즐거운 기억이 될 것이다.



주간칼럼

청문단은 왜 문화농어활을 하는가?

주간 방미영 교수

1학기 수업이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시점, 청년문화콘텐츠기획단(이하 청문단)에서는 6월 28일(수)~30일(목) 2박 3일 일정으로 경남 산청군으로 문화농어활을 다녀왔다. 청문단의 문화농어활은 2013년 창단 이후 여섯 번 째로 진행되었다. 창단 이후 10년 동안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과 연계하고 있지만, 문화농어활은 청문단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인구소멸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해결점을 찾고 방안을 모색하는 청문단의 문화농어활은 대학에서 총학생회 중심으로 하는 농활과는 사뭇 다르다. 청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역 문제를 2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지만, 청년들에게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와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문단의 2023 문화농어활은 경남 산청군 한방웰니스 치유마을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컨설팅으로 진행되었다. 청년들과 치유마을 주민들 간의 교감과 이해를 이끌어내어 산청군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꾀하지는 취지다. 첫날, 아침 8시에 당산역에 모여 휴게소에서 한 번 쉬 후 4시간을 달려 경남 산청군에 도착하였다. 청문단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산청군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 분들이 마중을 나와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청문단은 짐을 든든하게 챙겨 먹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우선 산청을 처음 온 학생들을 위해 김동환 단장님께서 직접 주요 관광지 역할을 안내해주었다. 단원들은 처음 대하는 산청의 모든 곳을 신기해하면서 열심히 듣고 질문하였다. 특히 산청군의 명소인 동의보감촌을 둘러보고, '기바위'에서 모두 소원을 비는 신비한 체험도 하였다. 투어를

마치고 저녁시간에 한방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팬션대표들과 영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컨설팅으로 진행되었다. 청년들과 치유마을 주민들 간의 교감과 이해를 이끌어내어 산청군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꾀하지는 취지다. 첫날, 아침 8시에 당산역에 모여 휴게소에서 한 번 쉬 후 4시간을 달려 경남 산청군에 도착하였다. 청문단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산청군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 분들이 마중을 나와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청문단은 짐을 든든하게 챙겨 먹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우선 산청을 처음 온 학생들을 위해 김동환 단장님께서 직접 주요 관광지 역할을 안내해주었다. 단원들은 처음 대하는 산청의 모든 곳을 신기해하면서 열심히 듣고 질문하였다. 특히 산청군의 명소인 동의보감촌을 둘러보고, '기바위'에서 모두 소원을 비는 신비한 체험도 하였다. 투어를

막 날 오전, 탐별로 준비한 PPT와 쇼츠 영상을 발표하였다. 긴장된 단원들에게 참여한 팬션기업 대표들과 산청군농어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에서 폭풍 칭찬이 쏟아지자 남은 각 팬션 치유프로그램을 컨설팅하고 홍보 쇼츠 영상을 제작하는 8시에 당산역에 모여 휴게소에서 한 번 쉬 후 4시간을 달려 경남 산청군에 도착하였다. 청문단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산청군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 분들이 마중을 나와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홍보라는 활동을 실제 지역과 기업에 적용하여 활용해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해볼 수 없는 경험이라 더 좋았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기업을 토대로 기획안을 작성해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지역의 특색있는 체험과 여행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 기자의 눈 |

똑같은 언어로 말하지 않아도 관찰아, 다 알아들을 테니까

지난 3월 말부터 매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마다 '자람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됐다. 처음으로 금요일 공강이 생긴 나는 봉사를 찾아 나섰다. 마땅한 봉사를 찾아 그동안 미뤘었던 장기 봉사의 꿈을 이루게 돼 기분이 들었다.

봉사 첫날, 수업 장소를 착각해 한국어 수업 현장이 아닌 본부라 버렸다. 함께 수업 장소를 가자며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선생님께서는, “학생인데 어떻게 봉사할 생각을 다했냐”고 하셨다.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면서, 오히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들은 바로는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전, 현직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분도 있었다. 나는 그저 러시아어와 영어를 전공하는 학생인지라 설렘과 시름을 한 아름

안고서 센터로 향했다.

나는 몽골에서 온 초등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됐는데, 한국어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모음과 자음이 알고 왔던 터라 한글은 잘 읽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는 수업 내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 같았다. 더군다나 기본적인 일상 대화조차 이어가지 못했다.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난감했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스스로 되물어보면서 며칠을 고민했다. 소름이 잘되지 않으니 아이가 휴대폰을 바라보는 게 당연했다. 갑자기 엄마와 통화를 하질 않나, 인스타, 틱톡,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들락날락했다. 가끔 몽골 노래를 부르거나 유튜브에서 노래를 틀기도 했다. 이따금 당황했다.

그러다 봉사를 주관하는 선생님

과 상담하고 나서야 변복였다. 중요한 건 진도를 나가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이야기는 시간을 늘렸더니 차차 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로 하면서 점점 한국어 실력이 느는 게 느껴졌다.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라 그런지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더러 있었다. 그럴 때는 쉬는 시간을 보냈다. 역시 수업했다간 외려 거부감이 들어 공부하기 싫겠지 싶었다. 그날도 그랬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쉬는 시간 도중, 아이가 먼저 게임을 하자고 말했다. “잘했어”라고 감탄하기도 하고 제법 잘 말했다. 이날 이후로 “아이고”와 같은 감탄사도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했다.

한국어 이름이 없다고 해서 나는

‘윤슬’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마음 쓰는 걸 알아차렸는지 윤슬이는 언젠가 눈을 맞추고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첫 만남을 떠올려 보면 장족의 발전이었다. 부끄러운 듯 고개만 끄덕이던 윤슬이 이렇게 잘 말한다는 건. 우리는 서로의 모국어로 말해도 다 알아들었다. 더욱이 나는 러시아어 전공이기에 키릴 문자를 읽을 수 있어서 몽골어가 낯설지 않았다. 물론 몽골어와 러시아어가 아주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단어도 있고, 아예 똑같은 단어도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11살이 라는 나이 차가 무색해질 정도로 신나게 떠들었다.

수업 일지를 쓰기 위해 윤슬이를 먼저 보내려고 하면, 윤슬이는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며 내가 일지를 다 적을 때까지 기다려줬다.

같이 정리하고, 같이 센터를 나섰 다. 헤어질 때까지 도란도란 대화도 나누다가 가끔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다.

기말고사를 앞둔 전주, 그간 일상이던 봉사를 그만두게 됐다. 제대로 된 인사 없이 헤어지는 게 아쉬워 따로 약속을 잡았다. 게임을 좋아하는 윤슬이를 보드게임 카페로 데려갔다. 그동안 잘 지냈으며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내게 윤슬은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번역기 화면을 보여줬다. 과연 초등학생다운다. 우리는 깔깔 웃어대며 게임을 실컷 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도 모르는 새, 이심전심으로 우정이 싹트고 있었다. 내게도 국적과 연령을 뛰어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재밌다. 다시 만나면 말을 얼마나 재잘재잘 잘 하게 될지 기대된다.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 수습의 눈 |

아메리칸-드림에서 코리안-드림이 되기까지...

1940년부터 1990년 후반까지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던 한국인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 일자리를 통해 큰돈을 벌거나, 저축을 통해 돈을 벌어 아메리칸드림의 기반을 웬만큼 다져 놓았다. 이는 미국적인 이상 사회를 꿈꾸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큰 본보기가 됐다.

하지만 희망의 단어 아메리칸드림은 언젠가부터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말들로 변화기 시작했다. 미국의 다인종 다문화 시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 이상 사회의 본질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오롯이 다음 세대에 가서 나타났다. 한국인들의 문화보다 미국의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2

세들과 3세들의 방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아메리칸드림은 점점 ‘코리안 드림’으로 대체되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인기 는 ‘한류’ 현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코리안 드림’과 K 컬처는 한류의 성공 비결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K 컬처는 한국 문화의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개념이다. 이는 음악, 드라마, 영화, 패션,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과 활동을 포괄한다. 한국의 예술가들과 크리에이티브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K 컬처는 이러한 한

국 문화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한류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이미지와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관광 산업과 수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한국의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K 컬처를 통해 더욱 국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류 아티스트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공연이나 투어를 개최하여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또한, K 컬처는 글로벌 미디어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데 큰 역할

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각화하는 한류 속 진화하는 K 컬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점점 확장되고 다양해지는 K 컬처 열풍은 지속될 수 있을까? K 컬처의 미래는 지속 가능한 가치 투영에 달려있다. K 컬처 산업은 자원 소모와 탄소 배출 등의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경친화적인 제작 과정과 재활용 가능한 소재의 활용, 친환경적인 이벤트 및 콘서트 운영 등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K 컬처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투영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과 문화 다양성을 함께 고려하는 데 달려있다. K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 수습의 눈 |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불매운동입니다

편의점에 가면 인기 캐릭터와 콜라보한 상품들이 많이 보인다. 포장지에 인기 캐릭터를 크게 인쇄하고, 랜덤으로 스티커나 키링을 주는 상품은 구매욕구를 상승시킨다. 캐릭터 회사는 라이선스 수익을 얻고, 제품회사는 쉽게 인지도를 확대하고 매출이 올라가니 상부상조다. 작년에 포켓몬빵이 전국적으로 열풍이었던 이후로 다양한 캐릭터 콜라보 제품이 현재까지도 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콜라보 제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제품들이었다. 스티커나 키

링이 랜덤으로 들어있는 상품은 캐릭터를 종류별로 모두 모으거나 원하는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구매를 유도하므로 상품의 맛과 질과는 상관없이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또한 캐릭터가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성을 타겟으로 하는 계략이다.

작년 10월 15일 SPC 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의 원료를 섞는 기계에 노동자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얼마 후 10월 23일에는 성남 공장에서 직원이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하지만 미흡한 대처와 반인륜적인 공장의 태

도로 주식회사 SPC삼립과 남양유업과 같은 악덕 기업들의 자체 상품, 이들의 산하 브랜드까지도 불매 운동이 일어났다. SNS의 발달 덕분에 불매운동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산하 브랜드에 방문하거나 포켓몬빵을 구매할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면 ‘무개념’이라는 인식이 생겨 불매운동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불매하기 시작했다. 유통 시간에 맞춰 대기 줄을 서고, 구매 예약을 할 정도로 인기 있었던 포켓몬빵은 매출이 10% 줄었고, 파리바게뜨는 전년 대비 30%가 줄었다.

남양유업은 과거부터 여러 위생

논란과 허위, 과대광고 의혹에 휩싸였으며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필로폰 투약 의혹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또한 경쟁사인 매일유업의 제품에 대해 목장 위치가 원전 근처라 ‘쇠맛이 나는 우유’라는 허위 사실이 광고대행사를 시켜 퍼트린 것으로 드러나 불매의 대명사가 되어 상품을 숨기고 판매할 정도다.

필자는 작년 전국적으로 SPC 불매운동이 있었던 후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제조회사가 어딘지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으며 최대한 납품 매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당시 불매운동은 기사 1편을 차지할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만/파/식/적

‘인간’ 다음을 잃지 않는 법

‘낭만’이란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설렘을 불러일으킨다. 대학생의 낭만, 직장인의 낭만, 어린아이의 낭만 등 우리는 각자가 처한 삶 속에서 낭만이란 보석을 찾고자 노력한다. 낭만이란 과연 무엇일까? 낭만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낭만이란 ‘아름다움을 태생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자체로 바라보며 느낄 수 있는 상태’ 따위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낭만을 찾기는 쉽지 않다.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정보의 홍수가 바로 그 이유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탄생하고 있는 수많은 기술에 뒤처지지 않으려 애쓴다. 서로 간의 온정을 나누는 선물의 형태는 수십 개의 숫자와 바코드로 완성된 기프티콘으로 변했고,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던 마음의 온도는 정형화된 텍스트 문자가 자리 잡았다. 기술의 발전이 ‘낭만 빈곤 사회’로 이끈 결과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기술의 발전 가속화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건 인정하는 바다. 필자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되는 낭만 빈곤 사회는 결국 인간에게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좌절’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시킨다.

최근 거대 인공지능 ‘CHAT GPT’의 등장은 세상을 들썩이게 했고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입증했다. CHAT GPT는 논문 작성, 프로그래밍, 소설 집필 등 인간이 시킨 업무를 막힘없이 적절 수행하며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했다. 또한 인간이 몇 날 몇 시간에 걸쳐 수행할 업무를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완성 시키며 인간의 무력감을 증대시켰다.

4차산업혁명이 가져다주는 무력감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법은 단순하다. 바로 ‘낭만을 잃지 않는 마음’이다.

기술을 습득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었지만 이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누군가는 추상적이라며 필자의 글을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점에서 기계와 차별점을 띤다. 인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낭만을 이용해 역경과 고난을 헤쳐온 존재다. 낭만은 삶에 몰입표를 던지며 메마른 현대인의 정서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된다. 즉, 낭만을 잃지 않는 마음이 기술의 홍수 속에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벨트라는 것이다.

바이하로 터져 한번과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러한 상황 속 단순 기술의 습득이 아닌 낭만을 잃지 않는 마음이 4차산업혁명을 보다 슬기롭게 마주하는 자세가 될 수 있음을 당부한다. 우리가 가장 ‘인간’ 다음을 잃지 않는 순간, 바로 마음에 낭만이 가득 찼을 때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사설

‘한예종 설치법’... 끝나지 않는 대립

최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을 두고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사립예술대학들의 대립이 발생했다. 위 법안은 앞서 1999년, 2005년에도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또,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예종 설치법은 타 대학들과 동일하게 한예종도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 한예종은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으로, 1990년 국립예술학교 설립계획 공포 및 1991년 12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립된 예술 전문 교육기관이다. 1993년 음악원 개원을 시작으로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을 개원하였고,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에서 올해 42위로 진입하는 등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학사학위만 인정되며,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해도 석·박사 학위 수여는 불가능하다. 박사 과정에 진학할 때만 석사 학위에 준하는 학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국내외 다른 대학과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없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예술교육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졸업생들이 해외유학을 선택하거나 다른 학교에 편입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예종 설치법을 마련하여 한예종의 법적지위와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이 한예종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립예술대학들은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와 한국예술교육학회가 반대성명을 내고 수도권 예술관련학과 대학생 등 1000여명이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반대 시위에 돌입했다. 죽어가는 지역 예술대학과 달리 한예종만 특별 대우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의 예술대학은 학과 통폐합 등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한예종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예종은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대학과 달리 교육과정 편성과 입학지원 관리, 교원 채용 등을 아무런 통제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박사 학위 과정을 만드는 건 현행 고등교육법을 무시한 모순된 법안이다. 또한, 각종 특혜는 누리고 교육부의 규제는 받지 않겠다는 한예종의 위선과 욕심의 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 소속 기관인 한예종에 교육부 인정 석박사 학위 과정을 신설하는 것은 유아 대상 영재교육원부터 박사과정까지 독점하는 것이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국립 교육기관이 해당 국가 전체의 예술교육을 독점하는 사례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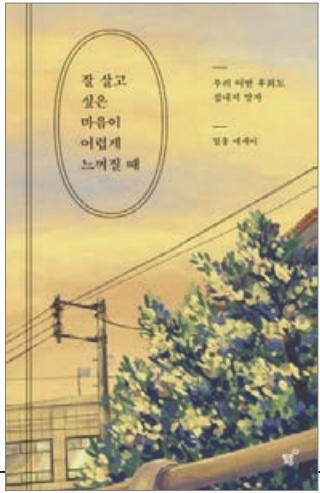
이러한 양쪽의 확고한 입장 차이로 인해 대립은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과연 긴 싸움은 언제 끝날 것이며, 그 끝엔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한채린 수습기자

(hanchaerin@skuniv.ac.kr)

이달의 책

마음의 여행이 필요하다면 -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어렵게 느껴질 때** 일홍



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저자는 백수와 프리랜서의 경계에서 혼란스러워한다. 누군가는 저자의 이런 삶을 동경하지만, 사실상 저자의 삶은 모순으로 둘러싸여 있다. 화려한 작가 '일홍'의 모습 뒤에는 거대한 우울이란 그림자가 드리워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작가 '일홍'과 인간 '정지은' 사이에서 회의를 느끼며 부정적인 감정에서 탈출하고자 애쓴다.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우울에서 벗어난 방법은 단순하다. 작가로 활동하며 작성한 문장에서 위로를 느끼면서 저자 자신을 보듬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마침내 저자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적었던 슬픈 문장이 결국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음을 깨닫는다.

작가의 경험담은 필자에게 큰 귀감이 됐다. 자신의 부정적인 순간을 글로 풀어내며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넨단 사실이 멋져 보이니까지 했다. 따지고 보면 자신의 치부인데 말이다.

사실 필자는 슬픈 감정을 직면하는 행위를 어려워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편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떨쳐내려 싶었다. 그

누구에게나 회의감은 찾아온다. 인간관계의 회의감, 학업의 회의감, 인생의 회의감 등 그 종류는 다양하다. 이 책은 이러한 '회의감'에 대해 논한다. 저자의 경험담을 글로써 풀어내어 독자들에게 담담한 위로를 건네는 것이다.

저자는 일러스트레이터와 작가로 활동

래서 때로는 한계가 찾아와 나를 감아먹었다. 이러한 나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마주하는 것이라 사실을 깨달았다.

아픈 감정을 직면하는 행위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상기시키는 일은 한편으로 잔인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을 켜켜이 쌓아둔 채 지내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싣고 달리는 기관차와도 같다. 과거 필자의 모습처럼 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또 다른 자책이 찾아오기 전에 부정적인 감정과 직면해 싸워보려 한다.

저자는 책 소개 글에 "말쭙한 척 단순한 표정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책"이라는 말을 남겼다. 감정에 직면하기 어려운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한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쯤엔 분명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이달의 전시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요시다 유니 : Alchemy**



항상 뒤틀린 풍경이나 사물이라도 생각하기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질 때가 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니거나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려 노력하는 것은, 그저 휴식을 위한 여가일 때도 있지만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색다른 시각을 가져보고 싶은 이라면, 이번 요시다 유니의 기획전이 마치 선물처럼 다가올 것이다.

요시다 유니는 전 세계적으로 활약 중인 일본의 유명 아트디렉터로 패션브랜드, 잡지, 광고, 아티스트의 비주얼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구성한다. 전시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파트는 <Freeze dance>다. '자연물에 똑같은 형태나 색상이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형상과 색감이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기인해 제작한 작품들로, 기획전 포스터에 실린 과일 모자이크가 그중 하나다. 생명력을 지닌 꽃과 과일의 시간적 한계를 뒤

나타냈다.

두 번째 파트는 <Hidden picture>다. 이 파트에서는 브랜드와 아티스트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그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작업들과 제작 과정을 담은 러프 스케치를 만나볼 수 있다. 곡선을 강조한 의상과 헤어로 파운데이션을 표현한 화장품 브랜드 'Shu Uemura'와의 작업, 서류 더미를 쌓아 등장인물의 잔상을 표현한 일본 드라마 'epris'와의 작업 등은 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파트는 <Playing cards>다. 이 파트는 요시다 유니가 이번 개인전을 위해 제

작한 신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트럼프 카드를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이다. 카드의 핵심인 하트, 클로버,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마크를 모두 사진으로 표현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표지는 꽃을 이용해 패턴을 만들고, 숫자나 그림 카드들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품들을 활용해 제작했다. 그는 '조금만 눈을 돌리면 작은 부분에도 또 다른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고 한다.

해당 기획전은 둘러보는 내내 감탄의 연속이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물도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내거나, 하나의 피사체 내에 감춰진 소품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은 마치 어렸을 적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 내 안에 감춰진 상상력을 자극하고 싶다면 이 전시에 방문해보길 권한다.

이종은 기자 (20eun00@naver.com)

이달의 영화

진정한 행복이란 - **꾸뻬 씨의 행복 여행** (2014)



맨 처음 떠난 곳은 중국. 그는 중국행 비행기에서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부자 사업가를 만나고,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헤티는 두 번째로 아프리카로 떠난다. 가장으로서 죄책감을 느끼는 마약 밀매상 디에고에게, 그의 아내가 복용해야 할 새로운 정신과 약들을 작성해 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헤티는 강도단에게 납치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디에고의 이름이 새겨진 펜 덕분에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헤티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온전한 행복을 느끼고, 자신이 베푼 선의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는 교훈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헤티는 첫사랑을 만나러 미국으로 떠난다. 헤티는 이미 가장까지 꾸린 첫사랑 아그네스에게 '우리가 안 헤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한다. 아그네스는 그런 헤티에게 현실 속에서 살라는 일침을 날린다. 자신이 과거의 행복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느낀 헤티는 현재 자신의 진정한 행복은 여자친구 클라라와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을 깨닫고, 클라라와 결혼식을

매일 자신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환자들을 만나는 정신과 의사 헤티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고자 여행을 떠난다. 그는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에게 행복에 관한 질문을 하며, 수첩에 행복의 비밀을 하나씩 기록한다.

올리며 영화는 마무리된다.

헤티는 긴 여정을 통해 행복이란 어떤 지향점이 아니라 살아가는 때 순간 느끼게 되는 감정임을 깨닫고, 현재 느낄 수 있는 행복에 충실하다. 여행지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느끼는 장면을 마주하며, 인생은 사소한 행복의 순간들의 집합체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꾸뻬 씨의 행복 여행'은 헤티와 같이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현재 느낄 수 있는 행복의 기쁨을 알게 해준다. 일상에 지쳐 힘든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유쾌하고 힐링이 되는 영화다. 헤티와 함께 다채로운 여행을 즐기며, 거창한 것이 아닌 나의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사소한 기쁨을 즐겨 보자.

유지우 수습기자 (milkyway_85@naver.com)

이달의 음악

내가 지나온 모든 여행길은 마침내 내가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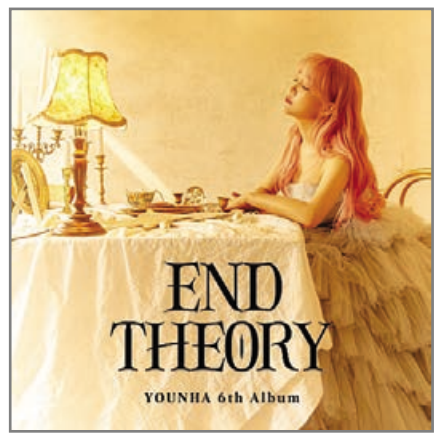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이란 뜻이 있는 '여행'. 하지만 우리는 꼭 사전적 의미의 여행만 떠나지는 않는다. 자신의 발전을 목적으로 떠나는 이도 있고, 그저 즐기러 여행을 갔으나 그곳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 돌아오는 이도 있다. 이렇듯 오늘은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날 때, 같이 듣기 좋은 노래 세 곡을 뽑아봤다.



♫ <let's> - 호피플라

"무작정 떠나 네 주위를 봐
...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
이제 나는 떠날래
...
우린 뭘 놓치고 살았는지
좋아하고 미워하는 건 다 지쳐서
오늘은 다 잊고 즐기자
아무도 우릴 모르니까"

무작정 떠난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과 만나며 자신의 몰랐던 면을 알아보는 것은 어떤가? 떠나면 해외가 아니더라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면 새로운 나를 찾는 여행은 어디서든 가능하다. 실제로 필자는 며칠 전 홀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부딪치며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한층 더 잘 알게 됐다. 계획 없이 어딘가 낯선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이 노래와 함께 해보자.



♫ <오르투름> - 윤하

"벽한 맘으로 이 궤도를 벗어나
Let's go!
새로운 길의 탐험가
...
오로지 나를 믿어
지금이야 바로 time to fly
두 눈앞의 끝, 사뿐 넘어가
한계 밖의 trip, 짜릿하잖아"

어디론가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새로운 도전 또한 하나의 여행이 될 수 있다. '미지의 세계로 출발한 우주주 탐사선 보이저호의 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로'라는 이 노래,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새로운 자신을 찾는 기나긴 여정을 떠날 때, 이 노래와 함께 해보자. 노랫말처럼 한계선을 '사뿐 넘어가'게 될지도 모른다.



♫ <I> - 태연

"잊었던 꿈 내 맘 또 그려내
움츠렸던 시간 모두 모아 다 삼켜내
작은 기억 하나둘씩 날 깨워가
세상 가득 채울 만큼 나를 펼쳐가
길고 긴 밤을 지나
다시 trip 길을 떠나볼래"

하루하루가 새로운 선택과 도전의 연속이 아니었던가?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나긴 여행일지도 모른다. 인생을 여행하며 발견한 새로운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그런 본인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여행에서 자신을 찾기 위해 수많은 길을 걸어온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나연 수습기자 (nykim0409@naver.com)

이달의 장소

일상에 선풍을 찍는 여행 - **미사리 경정공원**



있는 날들이 장소로 '미사리 경정공원'을 추천한다.

'미사리 경정공원'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132만여㎡(40만여 평)의 규모의 공원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조정, 카누 경기를 위해 1986년에 조성됐다.

경정공원에 들어서자마자 조정호수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드넓은 잔디밭을 볼 수 있다. 축구장, 족구장 등의 스포츠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것 중 하나는 자전거 대여 서비스이다. 이륜 자전거, 사륜 자전거, 페달 카트 등의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으며 공원 내에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대여가격은 최소 4,000원부터 25,000원까지 자전거 종류별로 상이하다. 자전거를 타고 약 2,212m 길이의 호수 옆을 달리면 스트레스가 시원하게 해소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이곳에서 '바비큐버퍼페스티벌(이하 하남 BBQF)'이 처음으로 개최됐다. 바비큐 플레

어느덧 여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 종강과 함께 여름이 찾아오면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한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꼭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반나절 동안의 '소풍' 만으로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환기할 수 있다. 서울 근교에서 조족빛의 자연을 한껏 즐길 수

터, 아사도 바비큐 등 여러 가지 바비큐 메뉴와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었으며 이찬원, 다이아믹 듀오, 포레스텔라 등 60여 팀의 공연 또한 즐길 수 있었다.

서울에서 미사리 경정공원까지는 강남역 기준 차로 30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용 시간은 6시부터 20시까지이며 주차요금 외 별도의 입장료는 없다.

이번 주말, 서울 근교로 소풍을 떠나 일상에 선풍을 찍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온 만큼 잠시 쉬어가느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금예진 수습기자 (keumij7276@naver.com)

이달의 스포츠

'테니스 왕자' 정현, 다시 한번 날아올 수 있을까?

정현은 대한민국 테니스의 자랑으로 주목 받고 있는 선수로, 그의 업적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탁월한 실력과 끈기로 인해 국내외에서 큰 인정을 받고 있으며, 그의 테니스 경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

정현은 어린 나이부터 테니스에 열정을 가지고 전념해왔다. 체력과 기술적인 능력은 그를 대한민국 테니스의 주축 선수로 만들어 줬다. 빠른 발로 움직이며 공을 따라가고, 강력한 샷과 정확한 터치로 경기를 주도

하는 모습은 테니스 팬들에게 큰 인상을 주고 있다.

국내의 다양한 대회에서 놀라운 성과도 거뒀다. 그는 대표적인 그랜드 슬램 대회인 윌슨, 톨랜드 가로스, US 오픈 등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세계 랭킹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대회 우승과 준우승, 그리고 강력한 상대를 이기는 경기력은 그를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로 인정받게 했다.

하지만 정현은 2018 호주 오픈에 생긴 부

상을 시작으로 2년 7개월 동안 공백기를 가져야 했다. 지난 6월 17일, 영국 브래드퍼드에서 열린 남자 프로 테니스(ATP) 일클러 트로피 챌린저 대회 예선에서 어깨 통증을 느껴며 1세트 경기 도중 기권 패했다.

이에 윌슨턴 출전이 어려워 보였지만, 다행히 부상은 심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경력에 큰 타격을 줬으나,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치료와 재활에 전념했다. 그의 끈기와 전문적인 재활 접근 방식은 그가 이른 시일 안에 부상을 극복하고 경기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상황 속 오는 7월 3일, 2023 윌슨턴 테니스 대회에 정현이 출격한다. 부상으로 인해 잠시 경기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기간이 있었기에 긴장이 끈을 놓아선 안 된다.

윌슨턴 예선은 6월 26일부터 진행된다. 남녀 각 128명의 선수가 토너먼트 형식으로 3회전까지 치러 16명의 생존자가 내달 3일 개막하는 본선에 진출한다.

아직 경기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예선 통과를 기대하기에 힘든 처지지만, 정

현은 2013 윌슨턴 주니어 단식에서 준우승의 성적을 거둔 좋은 기억이 있다. 또한 2018년 호주오픈 단식에서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를 8장에서 꺾는 등 파란을 일으키며 준결승까지 올랐다.

앞으로도 정현의 도약에 대한 기대가 높다. 끊임없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고, 세계 랭킹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열정과 헌신은 대한민국 테니스의 미래를 밝게 비추며, 많은 이들에게 테니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선수에게 부상은 치명적인 꼬리표지만, 잘 극복해가며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정현에게도 부상 극복이 새로운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다시금 이전 경기 감각들로 한국 테니스의 역사를 써 내려가길 바란다.

윤정현 수습기자 (tony0435@naver.com)